

표암 강세황의 생애와 산수화

손여진

1. 소년기: ~ 32세 (1713~1744)

강세황은 강주, 강백년, 강현으로 이어지는 소북계 명문세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가문과 선조의 업적에 자부심을 지니고 성장한 그는 그들처럼 출사하여 조정에서 포부를 펼치고자 어린 시절부터 과거 준비에 몰두했다. 15세(1727년)에는 남인의 삼대가문으로 일컬어지던 진주유씨 유뢰의 장녀와 혼인하였다. 그러다 16세(1728년)에 형 강세윤이 무신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유배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그 후 21세(1733년)에 아버지가 병을 얻어 별세하였고, 25세(1737년)에는 집이 가난하고 사람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식구들이 떨어져 살게 되었다. 이 당시 그가 쓴 글 <산향기>의 내용을 보면 당시 그의 심리적 풍경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내 성격이 산수를 좋아하였으나 일찍이 ‘유우지질’이 있어 나다니기 어려워 한 번도 산에 오르고 싶은 바람을 이루지 못하였다. 오직 그림 그리는 일에 흥을 붙여 스스로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러나 기이한 취향으로 먼 곳을 상상함이 어찌 진짜 산수를 즐거움으로 삼는 것만 같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나의 질병을 잊고 나의 바람을 갚을 만하지 못하다.

‘유우지질’이란 우울증에 해당하는 신경증적 장애였다. 그의 20대는 무신란의 여파 속에서 가문에 닥친 위기를 수습해야 했던 압박감으로 그늘져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그를 회화에 입문하게 만든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28세(1740년)에는 어머니 상을 당하였다. 역시 3년 여묘를 살았다.

2. 청장년기 안산의 야인시기: 32~61세 (1744~1773)

가세가 기울어 장기적인 금고의 상태에 처한 그는 날이 갈수록 가난이 심해져 서울에서 지낼 수 없었으므로 32세(1744년)에 처가인 진주 유씨가 세거한 안산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 사이를 전후하여 태어난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차례로 3~4세 또는 5~6세에 죽는 불운이 겹치기도 했다. 정치적 금고 상태에서 사회 활동에 한계를 지녔던 그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활발한 회화 활동을 펼쳤다.

<현정승집>은 그가 안산에 이주한지 3년이 지난 35세에 그린 것으로 그의 가장 이른 작품이다. 현정은 그윽한 정자를 뜻하며, 승집은 아름다운 모임을 뜻한다. 조선 후기 문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림이자, 그의 안산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35세(1747년)에 그린 <현정승집>



“현정승집”이라는 제목 글씨가 있고 다음에 그림, 그림 내용에 대한 설명과 참가 인물들의 시가 차례로 적혀있다. 그림의 무대가 되는 마루가 중심이고 추녀와 기둥, 뗏돌 축대로 화면을 구획했다. 인물들은 바둑을 둔다든지 손에 무엇을 들었다든지 하는 자세와 위치가 모두 다르지만 얼굴의 특징은 없다. 의복의 선 역시 모두 비슷하여 인물에 따른 필치 변화는 볼 수 없다. 또한 마루와 문턱, 기둥, 처마 등에 사용된 선은 자세히 보면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붓의 속도와 힘이 일정하지 않고 끊길 듯 꼬불꼬불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가 초기에 사용했던 “박암”이라는 호가 쓰여있다. 젊었을 때에는 첨재, 산향재, 박암, 의산자, 나이 들면서는 표암, 표옹을 가장 많이 썼으며 표로라고도 했다. 그의 대표적 호인 표암은 어릴 적부터 등에 흰 얼룩무늬가 표범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호를 지은 것이다.

유경종(강세황의 처남)이 지은 기문을 보면 이 날은 1747년 6월 1일 초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곡의 청문당(유경종의 집)에 모인 이들이 술을 마시고 시를 읊조리며 더위와 피곤함을 잊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중이다. 술이 거나해지자 유경종이 강세황에게 부탁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였고, 강세황은 이 날의 풍경을 마치 스냅사진을 찍듯이 되살려냈다. 거문고와 술병이 뒷전으로 놓인 것으로 보아 술자리가 끝난 직후에 그린 것 같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강세황이다.

안산 초기의 회화는 <현정승집>처럼 처남인 유경종을 비롯한 진주 유씨 일가 및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한 여주이씨 일가 등 안산권의 문인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후기에는 점차 원거리의 남인 문인 및 소론 관료에 이르기까지 그의 그림을 요구하는 문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벽오청서도>는 이 시기에 그린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제작시기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묵법과 필치, 서명한 호가 젊은 시절 사용했던 “첨재”인 점 등으로 짐작해볼 때 이 시기에 그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0대 중후반에 그린 <벽오청서도>



<개자원화전>의 <심석전벽오청서도>



왼쪽의 <벽오청서도>는 오른쪽의 <개자원화전>의 <심석전벽오청서도>를 충실하게 방한 것으로 이는 오히려 방작(고전을 재해석하면서 자기화한 창작)이 얼마나 훌륭한 창작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또한 그가 남종문인화풍을 얼마나 격조있게 구사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직접적인 자료로서도 중요하다.

이 그림의 특징은 독특한 먼 산 처리 방식, 오동나무 잎의 묵법, 오동나무 줄기를 그린 윤곽선이나 건물의 기둥과 담장의 기둥의 필선이 끊길 듯 꼬불꼬불 이어지는 필치이다. 원본과 비교해보면 근경의 오동나무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 밑에 인물이 앉은 집과 대나무 숲이 다 같이 좀 더 안쪽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집의 방안에 구석 모퉁이 선을 표시하고 인물 머리 뒤의 창살무늬를 얹음으로써 깊이감을 분명히 해 주었다. 이는 미세한 차이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근경이 뒤로 물러나는데 따른 공간감을 맞볼 수 있는 큰 차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화면의 모양을 따라

바위가 왼쪽으로 옮겨가서 그 사이 공간이 새롭고 확실해졌다.

안산 시절 그는 활발한 회화 활동을 통해 시서화 삼절로서 명성을 얻고 인적관계를 넓혀갔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시기는 그가 화가로서 문인 사회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복권과 출사를 이뤄낸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던 그에게 일생 최대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44세(1756년)에 부인 유씨가 별세했던 일이다. 어려운 살림에 믿고 의지하던 부인의 죽음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완화초당도>는 부인의 별세 다음 달 송림사에 들어가서 그린 그림이다.

44세(1756년)에 그린 <완화초당도>



<완화초당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덧붙여져 있다.

시골에서 자라나서 옛사람의 좋은 작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발전이 없었는데 이제 늙고 또 싫증이 나서 옛날 좋아하던 것도 모두 시들해졌다. 간혹 작품을 해 보아도 모두 마음에 드는 것이 없고 도무지 한 장난에 그치고 만다.

그림 속 바위의 윤곽처리와 형태감, 준법에 쓰인 선이 심약한 점, 짜임새 등을 생각할 때 앞선 시기에 그린 그림들에 비해 성숙도가 덜하게 느껴지는데 이는 글에서 밝혔듯이 시들해지고 맥빠진 당시의 특수한 감성을 감안해야 이해할 수 있다.

그 후 다음해인 45세(1757년) 7월에 그는 개성 여행을 한다. 여행을 하며 남긴 <송도기행첩>을 보면 <완화초당도>에서 보인 의기소침한 심경의 작화 태도가 개성 여행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맞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45세(1757년)에 그린 <송도기행첩> 중 <영통동구>



<송도기행첩>은 총 16폭의 그림으로 그가 여행한 개성 명승의 실경을 그린 그림이다. 그가 그 곳 명승지에서 받았던 감동을 현실감 있게 표현한 점에서 주목된다. 이 화첩의 그림들은 진경산수인 동시에 새로운 서양화법을 수용하여 독특한 화풍을 이룩한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영통동구>는 이 화첩의 바위 표현 중에서 가장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신선하고 부드러운 입체감을 내는 토산 사이의 공간에 비교적 일정한 굵기의 윤곽선으로 그린 다양한 크기의 바위들이 배치되었다. 바위의 준은 일체 생략하고 윤곽선에 잇대어 선염 채색을 하여 음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검은색 부분을 제외하고는 윤곽선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평면적인 경향을 갖는다. 여기에서는 특히 색감의 변화가 주목되는데, 대부분 바위의 밑부분의 먹색의 번짐 효과와 윗부분의 이끼를 나타내기 위한 녹색 계통의 미묘한 색채 변화는 혁신적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바위와 토산 사이로 하얗게 난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인물의 표현이다. 가늘고 날카로운 선과 진한 먹을 써서 나귀 탄 인물을 확실하게 표현함으로써 작지만 초점이 되도록 하였다.

그는 평소에 명승지를 여행하고 싶어 했고, 가보지 못한 사군, 청하, 개성의 경치를 그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후일에 답사하고 실경을 그려서 비교해보겠다고 말한 바가 있었다. 그랬던 그에게 45세 때 맞은 개성여행의 기회는 그의 작화 심경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을 것이며, 특히 전에 보지 못하고 그렸던 개성 경치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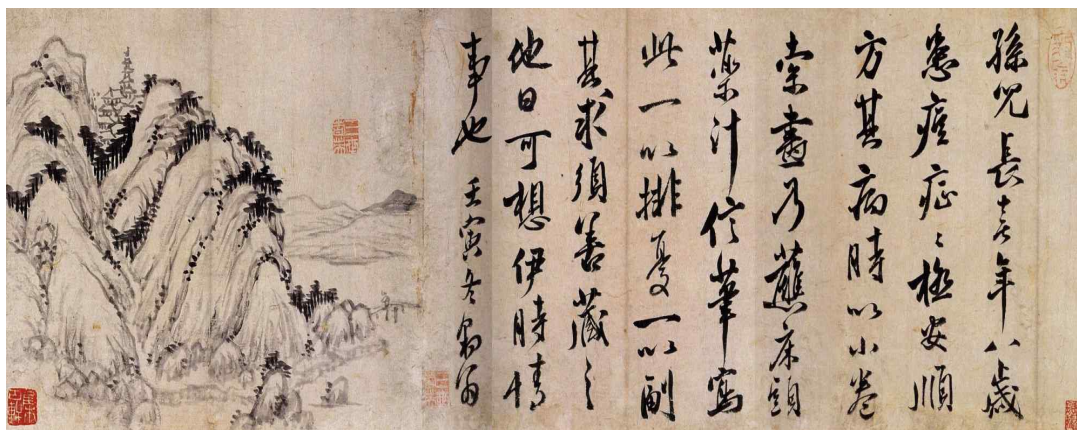
그 후 51세(1763년)에 둘째아들 완이 25세의 나이로 과거에 합격하였다. 이 시기에 경연에 모인 한 신하가 영조에게 강세황이 문장을 잘하며 서화에 능하다는 것을 말하자 “인심이 좋지 않아서 천한 기술이라고 업신여길 사람이 있을 터이니 다시는 그림 잘 그린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이는 옛 신하 현(강세황의 아버지)과 숙종과의 관계를 생각해 영조가 특별히 강세황을 아끼는 마음에 한 말로 보인다. 이 말에 감격하여 강세황은 “엎드려 놀라며 부르짖어” 사흘동안 눈물을 흘려 눈이 부어오

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화필을 태워버리고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기로 맹세하였고 사람들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51세(1763년)에 남긴 <춘경산수도>를 마지막으로 69세(1781년)까지 절필기, 즉 회화 작품 활동의 공백기가 이어졌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그림에 화평을 많이 씌으로써 회화 활동을 대신했던 것이 두드러진 특색이다.

3. 노년기 서울의 사환시기: 61~79세 (1773~1791)

그는 61세(1773년)에 출사하여 말년까지 관직을 유지하였다. 영조에 의한 그의 발탁은 영조가 추진한 탕평정책에 따른 것이며 무신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성사된 일이었다. 그 후 64세(1776년)에 기구과에 수석 합격하고 동부승지에 임명되면서 관료로서 자신의 입지를 닦아갔다. 그 해에 영조가 승하하였다. 영조는 그가 화가로 행세하여 사족의 명예를 실추할 것을 우려했지만, 정조는 그가 문학과 함께 회화적 능력을 겸비했음을 높게 평가했으며 그의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69세(1781년)에 정조의 어진 제작에 감동관으로 참여하였다. 그것이 그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계기로 추측된다. 왕으로부터 공인받음으로써 다시 그림을 그릴 명분을 되찾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계기로 추측되는 것은 그림을 그려달라는 아픈 손자의 요청이다.

70세(1782년)에 그린 <약즙산수도>



위의 그림은 70세 자화상과 함께 그의 작품 활동이 재개된 것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가 70세가 되던 해 겨울에 그린 것이다. 그가 쓴 발을 보면 그림을 그린 이유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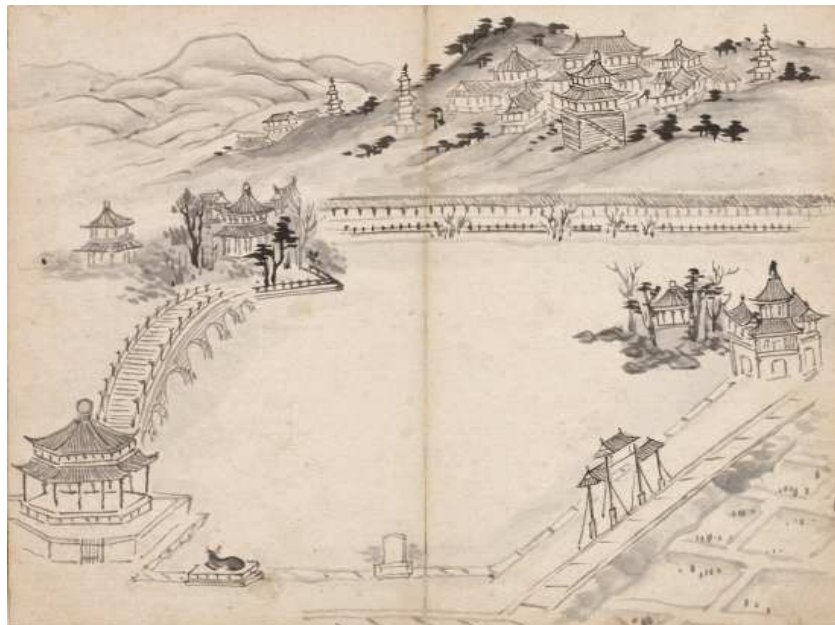
손자가 여덟살인데 천연두를 앓았다. 증세는 매우 순조로웠다. 앓고 있을 때에 작은 종으로 그림을 그려 달라 하기에 책상머리에 있는 약물에 붓을 적서 붓 가는 대로 이렇게 그렸다. 한편으로는 걱정을 덜기 위함이고, 한 편으로는 그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부디 잘 간직하여라. 후일에 당시의 정황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위의 발을 볼 때, 여덟살 난 손자가 그에게 그림을 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그가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 사실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 그림은 소재나 필법에서 전형적인 남종문인화풍을 보여준다. 연한 약쥬의 부드러운 선으로 능선을 따라 여러 줄 길게 그은 피마준이 개성적인 특징을 보이며 석법도 자기식으로 둥글둥글한 형태를 이루었다.

70세 자화상과 <약쥬산수도> 이후 그는 적극적인 작품 활동을 전개하며 관료인 동시에 시서화의 능력과 지식을 겸비한 문인의 정체성을 양립시키고자 하였다. 71세(1783년)에는 정조의 배려로 기로소에 입소함으로써 강백년, 강현을 이은 삼세기영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이 명예로운 사건을 계기로 이명기에게 요청하여 정식 관복을 착용한 공신도상의 초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 후 72세(1784년)에 도총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 해에 건륭제가 80세로서 천수연을 베푸는데 나이 연로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뽑아 보내라는 공문이 있었다. 조정에서는 다른 이를 추천하였는데, 정조가 “공신 강세황이 중국을 한번 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여 강세황이 북경에 가게 되었다. 일찍부터 그는 집안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그 형제, 매형 등의 인연을 통해 중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66세 때 사행원으로 중국에 가는 박제가에게 주었던 시에서 “중국에 출생하지 못한 것이 한이며 사는 곳이 멀리 떨어진 궁벽한 곳이기엔 지식을 넓힐 도리가 없다”고 했던 것을 통해 볼 때 중국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랬던 그가 꿈에 그리던 중국 여행을 가게 된 것이다.

72세(1784년)에 그린 <중국기행첩> 중 <사로삼기첩> 중 <서산>



<중국기행첩>은 그가 중국에 도착하여 그 곳의 실경을 다룬 그림인데 그 중 현재 다섯 폭만 알 수 있다. 중국 여행길에서 만난 세 가지 기이한 경치를 담은 <사로삼기첩> 중 위의 그림은 <서산>이다. 중국(당시 청) 황실의 별궁인 청이원(오늘날의 이화

원) 곤명호 일대를 그린 것이다. 거대한 인공 호수와 그 주변의 화려한 전각에서 받은 인상이 잘 포착되어 있다. 스케치풍으로 그렸으며 건물을 중심으로 주위의 경관을 반조감도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평행 사선과 수평에 의한 구도를 기본으로 하여 경물이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화면 가운데에 마련된 넓은 공간이 특색을 이룬다. 이 그림과 관련된 그의 시가 남아있다.

서산에 와보니 옛날 듣던 것보다 더 낫다. 옥으로 조각된 숲과 섬이 아득하여 구별하기가 어렵다. 얼음 같은 호수에는 반듯하게 옥을 깎아 놓은 듯하고 단청한 누각 천 겹은 우뚝히 구름 밖에 솟아 나왔다. 세상 밖에서 갑자기 지저분한 것을 멀리하게 되었음에 놀랐고 시야에는 먼지가 붙은 곳이 전혀 없다. 감히 시나 그림을 가지고 이곳을 그려 내려 하여 어리석게 다리머리에 앉아서 석양을 보내노라

그 후 76세(1788년)에는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그는 평소 금강산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면서도 지나친 유행을 천박하게 여겨 가지 않다가 맏아들 인이 부사로 있는 회양 관사에 가게 되면서 김홍도, 김응환 등과 일행이 되어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금강산 유람을 계기로 화첩 <풍악장유첩>을 남겼으며 그 뒤 77세 때까지 회양에 있으면서 <피금정도>를 제작하였다.

77세(1789년)에 그린 <피금정도>



피금정은 강원도 금성현 남대천에 있는 정자로 금강산행을 가는 많은 이들이 쉬어가던 곳이다. 이 지역 역시 그가 평소에 가 보고 싶어 했던 곳으로 다른 실경들과 달리 현장에서 그리지 않고 회양에 돌아와서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 덕택에 다른 그림들과 달리 대폭 화면에 정성들여 꼼꼼하게 나타낼 수 있었다. 화법을 보면 반부감법으로 포착하여 화면의 중앙축을 따라서 구불구불하게 후퇴하는 산들을 그렸다. 수많은 봉우리가 부분부분마다 지자형으로 연결되면서 화면 전체가 능선의 리듬감으로 가득 차게 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그보다 실경에 충실하여 나타난 현상인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필치를 보면 이렇게 정성들여 세밀하게 묘사한 예는 드문데, 특히 앞부분의 수목으로 둘러싸인 피금정 주변의 표현은 더욱 그러하다. 피금정을 지나 차츰 능선이 높아지면서 중첩되는데 그 필선이 가늘어지고 옅은 색으로 표현되지만은 전체적으로 같은 성질의 선으로 일관된다. 먹의 강약이 근경에서부터 차츰 멀어질수록 옅게 되어 가는 묘미가 훌륭하다. 피금정을 경계로 하여 상하로 산의 능선의 성격이 양분되는데, 피금정까지는 건물이나 수지법 등의 표현이 사실에 충실했다고 인정되며, 그 이후는 능선의 특징만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필선 위주의 그림에 구사된 필치는 남종문인화풍에 바탕을 둔 것이며 형사와 사의의 조화가 탁월하여 격조있는 분위기의 진경을 만들어 냈다.

그로부터 2년 후, 79세(1791년)에 맏아들 인이 죽고, 보름 뒤에 병환이 들었다. 죽기 직전 붓을 달라 하여 “창송불로, 학록제명”(푸른 소나무는 늙지 않고, 학과 사슴이 일제히 운다) 8자를 쓰고 세상을 떠났다.